

「제18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선정 결과

올해로 18회를 맞은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수상논문이 선정되었다. 「국토연구 우수논문상」은 국토 관련 연구의 질을 제고하고 연구의욕을 진작시키고자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 해 동안 국토연구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최우수 논문과 우수 논문 등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국토연구 우수논문상」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차에 걸친 심사와 논의를 거치고 있다. 올해에도 선정위원회에서는 국토정책의 활용성, 연구 내용의 창의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최우수 논문 1편, 우수 논문 2편을 선정하였다.

우수논문상 시상식에는 수상자 및 국토연구 우수논문상선정위원회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2월 11일(화) 국토연구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구분	논문 제목	연구자	소속	시상 내역
최우수	대도시 공간배제적 주거이동 영향요인 실증분석	이민주 박인권	서울특별시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전문 연구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부교수	상금 200만 원
우수상	계획행동이론에 기반한 임차가 구의 주택보유의향 분석	오연근 방송희 이용만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박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 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상금 100만 원
	통신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가하 천 친수지구의 이용등급, 상제 유형화 및 친수거점지구 지정 방법 개발	이종소 이상은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국토연구원 수자원 하천연구센터장	

「제18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심사평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이민주, 박인권의 “대도시 공간배제적 주거이동 영향요인 실증분석”은 서울시 및 광역시의 자치구 지역에서 발생한 주거이동의 요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가구특성과 지역특성에 관한 자료를 분석한 논문이다.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관련 지역자료를 수집하고, 다층 순서형 로짓모형을 활용해 실증분석한 것이다. 공간적 배제는 사회적 약자가 주거 및 생활 측면에서 공간적 선택 및 접근 기회가 제약된 상태를 말한다. 공간배제적 주거이동은 비자발적인 동기에 의해 주거환경이 악화된 곳으로 이주하는 현상이라고 정의되었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 공간배제적 주거이동에는 가구특성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요인들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택시장, 정책 시행, 커뮤니티 측면에서 다양한 요인들이 확인된 것이다. 그러므로 공간배제적 주거이동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차원의 정책을 통해서 공간적 포용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 논문은 사회적 약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역차원 정책의 필요성을 실증적으로 증명한 것으로 시의성이 높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현실적 제안을 담고 있으며, 연구방법에서도 모범적인 분석과정을 보였다고 판단되어 최우수상으로 선정하였다.

우수상으로 선정된 오연근, 방송희, 이용만의 “계획행동이론에 기반한 임차가구의 주택보유 의향 분석”은 사회심리이론 중 하나인 계획행동이론이 주택보유 결정에 유의미한지를 측정 한 논문이다. 주택분야 연구에서는 주택수요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다양한 논문이 있어왔다. 기존 논문들은 주택수요를 측정하는 요인으로 주택구입의향과 구입능력, 주택가격상승에 대한 기대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왔다. 본 논문은 기존 요인들을 확장하여, 계획행동이론에서의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동통제가 ‘주택보유의향에 작동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특히, 본 논문의 핵심지표인 주택가격 상승률과 DTI 비율의 차이가 주택보유의향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는 주택정책 입안자를 포함한 주택시장 참여자에게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논문은 주제가 참신할 뿐만 아니라, 연구의 출발점인 이론 고찰과 선행연구를 충실하게

기술하였고, 모형의 설정과 실증분석 결과의 해석에 이르기까지 매우 논리적인 구성과 밀도 있게 기술했다는 점에서도 우수한 논문이다.

우수상으로 선정된 이종소, 이상은의 “통신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가하천 친수지구의 이용 등급, 상세유형화 및 친수거점지구 지정 방법 개발”은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하천 공간을 지정·운영하기 위해 통신 빅데이터 이용지표를 사용하여 친수지구를 특성화하는 방법을 제안한 연구이다. 2007년 「하천법」 개정 이후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들이 하천공간을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친수지구를 지정해 오고 있으나,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의 공간 활용 방식에 대한 객관적이고 면밀한 수요조사 방법은 부재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친수지구 지정 후 하천공간을 체계적으로 특성화하는 방법에 초점을 두고 친수지구 이용도 조사를 통해 이용등급과 공간 활용의 유형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지정하는 방법과 기준을 제안한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하천관리 측면에서 매우 실용적이며 시의적절한 논문으로 하천관리자가 친수지구의 계획, 유지관리, 인·허가에 있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본 논문을 우수논문으로 선정하였다.

우수논문상을 수상한 연구자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며, 올해에도 「국토연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준 투고자, 심사위원, 편집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

2020년 1월

국토연구 우수논문상선정위원회